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모자 상호작용에서 어머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송 하 나¹⁾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

본 연구는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아동과 어머니 62쌍이었으며 아동과 어머니가 실험실을 방문하여 자유 놀이, 모자 놀이, 낯선 상황 등에서 관찰되었다. 녹화된 행동을 20초 단위로 나누어 두 명의 코더가 평정하였으며 상관과 회귀 분석을 통해 영향력과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이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하고 활발히 개입할수록 어머니가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였고 강압적인 행동도 덜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는 유의한 조절 변인으로써,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아동의 주도성이 어머니의 간섭/통제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양방향적인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머니의 긍정적 반응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모자 상호작용, 상호작용 주도성, 반응성, 정서적 기질, 조절 효과

1)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jni4ever@skku.edu)

I. 서 론

어머니는 어린 아동들이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상호작용의 일차적 대상이다. 아동-어머니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 경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김혜경, 김희진, 2001; 나유미, 1999; 이기숙, 김희진, 박은혜, 2004; 홍미림, 방희정, 이순행, 2007; Belsky, 1984; Szabo, Dekovic, van Aken, Verhoeven, van Aken, & Junger, 2008)은 이와 같이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아동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행동을 질문하기, 의견 교환, 제안하기, 수용하기, 거부하기, 정서적 표현, 과제 수행에 대한 태도와 경험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동이 어머니로부터 특정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아동이 어머니에게 자주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물을 때 어머니도 이에 호응하여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김혜경, 김희진, 2001; 이기숙 등, 2004), 아동이 부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어머니가 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Martini, Root, & Jenkins, 2004; Prinzie, Onghena, Hellinckx, Grietens, Ghesquiere, & Colpin, 2004). 무엇보다 여러 연구들이 모자간에 주고받는 행동의 순차적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이 양방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이 아동과 어머니 간의

양방향적 영향력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 결과들만으로는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상호작용에서의 주도성은 단순히 아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자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대인 관계에서 강조되는 상호성(reciprocity)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합의하여 조화롭게 행동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Reyna, & Pickler, 2009). 이 개념은 애착에서 강조하는 부모-자녀 간 목표 수정 파트너십(goal-corrected partnership)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예를 들어, Bowlby(1969/1982)는 상호작용을 할 때, 아동들이 어머니의 기분이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기분을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어머니와 동등한 파트너로 상호작용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발달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은 어린 아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 그러나 최근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이 주도하는 상호작용(child-directed interaction)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어떤 관계를 자신의 생각대로 주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은 이후 타인과 사회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Kochanska, Aksan, Prisco, & Adams, 2008), 반항 또는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급되었다(Harwood, & Eyberg, 2006). 특히,

Butler와 Eyberg(2006)는 어머니가 아동을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회·정서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원만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아동이 먼저 행동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 이후 또래를 비롯한 타인과 상호작용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시절의 모자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보이는 주도적 행동은 각각 강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빈도의 총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어머니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질문하는 행동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혼자 과제 수행에 몰두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질문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독자적 수행에 더 가깝고, 후자의 경우가 상보적 의미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수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주도성을 다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도성을 과제에 먼저 자발적으로 임하는 태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반응이 점차 증가하였으며(Butler & Eyberg, 2006; Harwood & Eyberg, 2006), 아동이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도는 어머

니의 민감성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의 적대성과는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ntymaa, Puura, Luoma, Vihtonen, Salmelin, & Tamminen, 2009). 또한 아동이 주어진 과제에 먼저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할수록 어머니도 아동의 열심에 맞게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나유미, 1999; 홍미림 등, 2007).

이처럼 주도성은 상호작용의 대상인 어머니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Belsky, Youngblade, Rovine, & Volling, 1991; Whipple, Denburg, & Davies, 1993) 어머니의 영향을 배제한 아동의 주도성을 살펴기 위해 어떤 자극 없이 아동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와 중간에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단계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주도성을 어머니의 영향 없이 행동을 시작하는 개시(initiation)와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개입(involvement)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많은 선행 연구들이 특정한 과제 수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도성과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주로 다루어 왔다. 아동과 어머니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잘 완수해야 한다는 동기나 부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더 주도적이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제 상황보다는 자유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자유놀이 상황 등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아동의 주도성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모자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동의 기질이

다. 특히,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정서성이 부모의 반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많이 알려져 있다. 정서적 기질은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표현하거나 타인의 정서에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Rothbart, & Bates, 1998).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에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Halberstadt & Eaton, 2002), 아동의 부정 정서성이 어머니의 훈육 행동과 모자 상호 작용의 질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ang, Caughy, Lee, Miller, & Genevro, 2009). 특히, Hua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화를 잘 내는 기질적 성향이 높을 때, 부모의 처벌적 행동에 관계없이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기질의 아동들에서는, 어머니가 처벌적일 때만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낮았다. 즉, 부정 정서성에 따라 처벌적 훈육행동이 모자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에 따라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과 어머니 행동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어머니의 반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또한 두 변인들 간의 관계가 아동의 정서적 기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조절 효과를 밝히려 하였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어

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적 기질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적 기질은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과 어머니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moderate)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양부모 가정의 만5세 아동(남아 38명, 여아 24명)과 어머니 62쌍이었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68.55개월($SD=3.69$)이었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30대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다. 처음에 참여한 사례 수에서 관찰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례와 각 변인들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난 62쌍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변인의 관찰 및 측정

아동의 정서적 기질

아동의 정서성은 특정한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기질적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ogon(1993)과 Fish(2004)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적 상호작용 연구의 관찰 상황을 참고하여 각 아동의 행동을 자유놀이 상황(15분), 낮선 상황(3분), 그리고 모자 놀이(6분)의 세 가지 상황에서 약 24분간 관찰하였

다. 관찰실의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자유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며, 모자 놀이 상황에서는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놀이하였다. 낯선 상황은 Ainsworth 등 (Ainsworth, Blehar, Water, & Wall, 1978)에서와 유사하게 처음 보는 낯선 실험자가 아동과 어머니가 있는 관찰실로 들어와서 말을 걸거나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는 상황이었다.

세 가지 상황에서 관찰된 아동의 기질적 정서성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누었다. 긍정적 정서는 웃음, 미소, 킁킁거림, 즐거운 감탄사 등을 포함하며, 짜증, 우울, 긴장과 놀람, 부루퐁하거나 화난 표정, 지루함의 표현은 부정적 정서로 보았다. 얼굴 표정 뿐 아니라 “이거 만지지 마”나 “나 나가고 싶어”등의 언어적 표현도 함께 고려하였다. Sogon(1993)은 부정적 정서를 슬픔과 화남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슬픔이 관찰되지 않아 부정적 정서 한 가지로 통일하였다.

본 연구자에게 훈련 받은 두 명의 코더가 녹화된 행동을 분석하였다. 총 관찰 시간을 20초 간격의 한 단위로 나누고, 한 단위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는지를 1로, 아니면 0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각 점수를 합하여 개인별 점수를 구하였는데 전체 24분인 72단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각 정서의 최고 점은 72점, 최하점은 0점이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전체 10개의 단위에서 웃음을 보였고 5개 단위에서 짜증을 내는 것이 관찰되었다면 긍정적 정서의 점수는 10점이고 부정적 정서의 점수는 5점이다. 두 코더 간에 평정이 일치하는 단위를 전체 단위수로 나눈 백분율로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정서적 기질에 대한 두 코더 간 일치도는 92.3%였다.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은 모자 놀이 상황과 낯선 상황의 두 가지 상황에서 약 9분간 관찰되었다. 어머니는 아동들에게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 뿐 아니라 낯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낯선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동과 제한 없이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들(Belsky, et al., 1991, Whipple, et al., 1993)의 준거를 참고하여 주도성을 개시(initiation)와 개입(involve)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상호작용 개시는 아동이 상대방과 상호작용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코딩단위 마다 아동이 먼저 말을 걸고 놀이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등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유도하는 정도에 따라 0부터 3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예를 들어, 전혀 쳐다보거나 말을 걸지 않고 혼자서 놀이하여 상호작용을 시작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어머니에게 먼저 단편적인 질문을 하긴 하지만 한 단위동안 주로 혼자 놀이에 몰두하는 경우에는 1점, 어머니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대화를 걸지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 어머니가 함께 놀아주길 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경우에는 3점을 주었다.

상호작용 개입은 상호작용이 일단 시작된 후 어머니와의 놀이나 대화에 몰입하여 이끌

어가는 정도를 0-3점으로 평정하였다. 행동이 나타나는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이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경우와 구별하였다. 코딩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놀이나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한 단위인 20초 내내 전적으로 몰입하여 주도하는 경우 3점을, 한 단위 동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혼자 놀이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 2점, 어머니와 단편적인 대화를 주도받긴 하지만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1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지속되지 않고 중단되거나 거부하는 경우 0점을 주었다. 상호작용 개시와 개입 모두에서 전체 27단위(9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최하점은 0, 최고점은 81점이다. 상호작용 주도성 전체에 대한 두 명의 코더 간 일치도는 80%였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아동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자 놀이 상황에서 6분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낯선 상황에서도 모자 상호작용에 제한은 없었으나 낯선 사람이 있어서인지 주목할 만한 어머니의 행동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결국 모자 놀이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선행 연구들(Biringen, Robinson, & Emde, 2000; Fish, & Stifter, 1999)에서 사용된 준거를 참고하여 반응성, 민감성, 간섭과 통제의 세 가지 범주에서 0-3점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상호작용 동안 아이가 원하는 것이나 흥미를 잘 알아차리고 아동의 선택을 존중하여 반응하며 또한 좌절을 적절히 격려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무관심하여 상호작용 동안 아동이 보내

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0점,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아동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는 1점, 아동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만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서투른 경우에는 2점, 아동의 의도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능숙하게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3점을 주었다. 민감성과 달리 반응성은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어머니가 아동의 놀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0점, 간헐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간단한 언급만을 하는 경우에는 1점, 아동의 놀이에 주로 관심을 보이면서 중간 중간 다른데 주의가 분산될 때는 2점, 한 단위 동안 내내 아동이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경우에는 3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간섭과 통제는 아동의 흥미와 의사를 무시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동에게 지시하거나 아동의 놀이를 마음대로 바꾸는 행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놀이할 것을 찾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를 알아차리고 어떤 장난감을 권하는 경우는 민감성으로 볼 수 있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거 해봐”하며 반복해서 강권하는 것은 간섭/통제로 볼 수 있다. 실제 간섭과 통제는 구별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찰 빈도가 높지 않고 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한 가지로 통일하였다. 어머니의 통제나 간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한두 번 아동이 원치 않는 간섭을 하고 그치는 경우에는 1점, 간섭/통제가 지속되지만 아동이 거부하였을 때 그치는 경우에는 2점, 한 단위 내내 아동의 행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아동이 거부하는데도 일

방적으로 지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3점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머니 행동은 특히 어머니가 상호작용에 적극적일 때 그 내용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반응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의도와 기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아동도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동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간섭을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개입/통제로 볼 수 있다. 각 행동마다 전체 6분 18단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최고점은 54점 최하점은 0점이다.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전체에 대한 두 코더 간 일치도는 85.8%였다.

3. 연구 과정과 자료 처리

아동과 어머니를 관찰하기 위해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의 빈 공간에 관찰실을 구성하였다. 아동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천정과 가로막이 커튼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였으며 관찰실 바닥에 카펫을 깔고 아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배치하였다. 아동은 유치원이 끝난 후 어머니와 함께 관찰실을 방문하였으며 자유놀이, 낮선 상황, 모자놀이 등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진행하였다. 아동과 어머니의 행동은 녹화되었으며 훈련받은 두 명의 코더들이 20초를 한 단위로 한 마이크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더들 간의 불일치가 있었던 경우 준거를 개발한 연구자가 세 번째 코더로 평정하여 그 결과에 따랐다.

자료 분석은 먼저 예비 분석으로 연구 변인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상관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에 따라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과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치 분석과 상관 분석

표 1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변인들에 대해 남아, 여아, 그리고 전체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각 변인들에 대해 성차를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 개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6$, $df=60$, $p<.01$). 구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상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기질 중 긍정적 정서가 아동의 상호작용 개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33$, $p<.01$) 상호작용 개입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 $p<.10$).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r=.47$, $p<.001$)와 상호작용 개시($r=-.29$, $p<.05$)는 어머니의 간섭/통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한편 아동의 상호작용 개입과 어머니의 반응성($r=.60$, $p<.001$)간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개입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반응적 행동을 많이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구 변인	남아 ($n=38$)		여아 ($n=24$)		전체 ($n=62$)	
	M	SD	M	SD	M	SD
[아동 정서적 기질]						
긍정적 정서	8.29	4.99	8.71	5.14	8.45	5.01
부정적 정서	3.05	2.63	2.68	2.39	2.89	2.56
[아동 상호작용 주도성]						
상호작용 개시	7.16	4.48	3.38	4.04	5.69	4.67
상호작용 개입	20.50	4.79	19.21	5.39	20.00	5.03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반응성	21.00	4.53	19.04	4.82	20.24	4.70
민감성	3.68	3.71	3.08	3.16	3.45	3.50
간섭/통제	3.66	2.63	3.79	2.59	3.71	2.60

표 2.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n=62)

	1	2	3	4	5	6
[아동 정서적 기질]						
1. 긍정적 정서	-					
2. 부정적 정서	-.12	-				
[아동 상호작용 주도성]						
3. 상호작용 개시	.33**	-.11	-			
4. 상호작용 개입	.22 ⁺	-.13	.27*	-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5. 반응성	-.04	.04	.10	.60***	-	
6. 민감성	-.10	.05	-.06	.07	.38**	-
7. 간섭/통제	-.12	.47***	-.29*	-.08	.03	-.1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 문제 분석

연구 문제에 따라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회

귀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예측변인과 종속변인이 1:1인 단순 회귀의 경우, 회귀 계수는 상관 계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복되는 분석을

피하려 하였고 상관 분석을 토대로 유의한 것에 대해서만 회귀 분석으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어머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의한 상관관계에 대해 단순 회귀 분석으로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대로 상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하였다. 아동의 주도성 중 상호작용 개입이 어머니의 반응성($\beta=.60, t=4.14, p<.001$)에 그리고 아동의 상호작용 개시가 어머니의 간섭/통제에($\beta=-.29, t=-2.31, p<.05$)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개시가 어머니 간섭/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했으며, 종속 변인에 대한 각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37%($F_{(1,60)}=34.5, p<.001$)와 8%($F_{(1,60)}=5.36,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적 기질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적 기질 중 긍정적 정서는 어머니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부정적인 정서적 기질만이 어머니의 간섭/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7, t=4.14, p<.001$)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22%($F_{(1,60)}=17.10, p<.001$)였다.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과 어머니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

아동의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정서성과 주도성을 곱하여 상호작용항(term)을 만들었다. 회귀 식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과 정서성 각각의 영향력을 알아본 후 ‘상호작용 주도성 × 정서성’의 영향력이 전체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예측 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표 2의 상관분석 결과 상호작용 개시와 간섭/통제, 그리고 상호작용 개입과 반응성 간의 상관만이 유의하였으므로 이 두 관계에 대해서만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상호작용 개시와 어머니 간섭/통제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독립적으로 어머니의 간섭/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전체 설명력이 8%에서 15%로 증가

표 3. 어머니의 간섭/통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62)

	1단계		2단계	
	β	t	β	t
1. 상호작용 개시	-.28	-2.09*	-.88	-2.81**
2. 긍정적 정서	-.03	-.24	-.43	-1.88 ⁺
3. 상호작용 개시 X 긍정적 정서			-.87	2.12*
R^2	.08		.15	
R^2_{change}	.08 ⁺		.07*	
F_{change}	2.66 ⁺		4.50*	

+ $p<.10$,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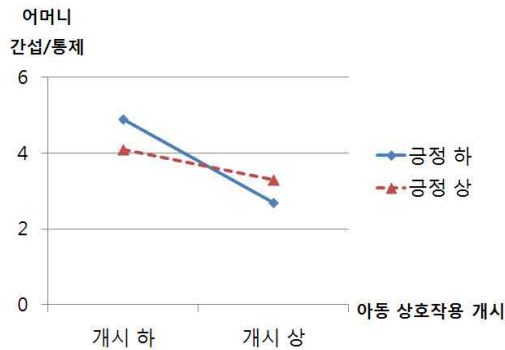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 정서의 조절 효과

($R^2_{\text{change}}=.07$, $F_{\text{change}}=4.50$, $p<.05$)하였으며 투입 변수의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다($\beta=-.87$, $t=2.12$, $p<.05$). 이는 긍정적 정서에 따라 아동의 상호작용 개시와 어머니/간섭 통제간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주도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의 주도성을 개시와 개입으로 나누어 각각이 어머니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주도성과 어머니 행동 간의 관계가 기질적인 정서성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유의한 연구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 논의 될 수 있다.

우선, 연구 문제 1을 검증한 결과,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 하위 요인인 상호작용 개입이 어머니의 반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다른 하위 요인인 상호작용 개시가 어머니의 간섭/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아동이 상호작용에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 역시 아동에게 더 활발히 반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이 상호작용을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하려 할수록 어머니의 간섭이나 통제적 행동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주도적으로 어머니와 의사소통 하였을 때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과 선택을 존중하는 민감한 반응이 점차 개선된다는 선행 연구들(Butler & Eyberg, 2006; Harwoor & Eyberg, 2006)과 유사한 점이 있다. Mantymaa 등(2009)도 아동이 상호작용에서 적극적 일수록 어머니가 부정적 반응을 덜 보인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 다룬 주도성은 아동이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지속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아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어머니도 이에 동조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상호작용 하려는 행동들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아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일 때 어머니는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동에게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아동의 주도성은 어머니에게 긍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먼저 주도하는 행동에 영향을 맞추었지만, 실제 상호 작용은 양자 간의 행동이 순차적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한다면 아마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가 역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주도할 기회를 주고, 이러한 점이 다시 아동의 주도성을 높였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의 간섭과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는 아동에게 어머니가 통제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와 어머니 행동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위축되거나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가 쉬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보다 통제적이고 간섭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Bost, Choi, & Wong, 2010; Lee & Bates, 1985; Szabo, et al., 2008). 특히, Chaplin 등(Chaplin, Cole, & Zahn-Waxler, 2005)은 부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부모가 아동을 더 다루기 어렵게 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것이며, 그 결과 긍정적 정서가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들은, 아동의 주도성 개시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의 조절 효과를 보고한 Huang 등(2009)의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Huang 등(2009)은 아동이 부적 정서적 기질이 낮은 경우, 어머니가 강도 높은 처벌적 행동을 보일 때만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정서성이 부모의 통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경우, 아동의 주도성 개시가 어머니의 간섭/통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성이 높을 때는 주도성 개시가 높은 경우 어머니가 통제적 행동을 조금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주도성이 낮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긍정적 정서가 어머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아동의 긍정적 정서가 낮은 경우에는, 주도성 개시가 높고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는 기질을 가지면서 주도적 행동을 먼저 보이는 경향이 낮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간섭/통제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정서성이 낮아도 주도성 개시가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통제적 행동을 덜 보였다. 이처럼 아동의 긍정적 정서와 주도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어머니의 간섭과 통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본 연구는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어머니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양방향적인 모자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여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도성을 시작하는 단계와 지속하는

단계로 나누어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아동의 기질이 주도성과 어머니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을 함께 조명하였다. 무엇보다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주도성이 낮은 경우 긍정적 정서성이 그 부적 영향력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서적 기질을 모자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점은 후속 연구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순차적 분석을 포함한 동시 다발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머니가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이 시작될 수 있다. 즉, 상호작용 동안 주고받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들이 항상 체계적이지는 않으며, 주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분석을 다각도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관찰로 측정하였으나 부모가 지각하는 기질이 부모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Burney, & Leerkes, 2010; Rothbart, 1981). 타인이 관찰한 결과 부적 정서성이 높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동이 짜증이나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측정의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자기 보고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질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혜경, 김희진 (2001).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전략과 질. *아동학회지*, 22(2), 77-90.
- 나유미 (1999).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 *애착과 기질*. 아동학회지, 20(4), 75-89.
- 이기숙, 김희진, 박은혜 (2004). 상호작용맥락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전략: 자유놀이와 과제해결 맥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4), 33-48.
- 홍미림, 방희정, 이순행 (2007). 어머니-유아 문제해결 상호작용에서 유아 행동 특성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어머니 행동특성, 애착 안정성, 유아의 기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23-145.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87-498.

- Biringen, Z., Robinson, J., & Emde, R. N. (2000).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 2nd edi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251-255.
- Bost, K. K., Choi, E., & Wong, M. S. (2010). Narrative structure and emotional references in parent-child reminiscing: associations with child gender, temperament, and the quality of parent-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139-156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urney, R. V., & Leerkes, E. M. (2010). Link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infant temperament and coparenting.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2), 125-135.
- Butler, A. M., & Eyberg, S. M. (2006).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ethnic minority children.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3), 246-255.
- Chaplin, T. M., Cole, P. M., & Zahn-Waxler, C. (2005).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Gender differences and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Emotion, 5*, 80-88.
- Fish, M. (2004). Attachment in infancy anpreschool in low socioeconomic status rural Appalachian children: stability and change and relations to preschool and kindergarten compet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293-312.
- Fish, M., & Stifter, C. A. (1999). Paren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rural Appalachian mothers. *Journal of Rural Community Psychology, E-2*(1), 1-28.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lberstadt, A. G., & Eaton, K. L. (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Emotions and the Family, 34*, 35-62.
- Harwood, M., & Eyberg, S. (2006). Child-directed interaction: prediction of change in impaired mother-child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23-335.
- Huang, K., Caughy, M. O., Lee, L., Miller, T., & Genevro, J. (2009). Stability of maternal discipline practices and the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 during toddler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31-441.
- Kochanska, G., Aksan, N., Prisco, T. R., & Adams, E. E. (2008). mother-child and father-child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in the first 2 years and children's outcomes at preschool age: mechanism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9*(1), 30-44.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Mantymaa, M., Puura, K., Luoma, I., Vihtonen, V., Salmelin, R. K., & Tamminen, T. (2009). Child's behavior in mother-child interaction predicts later emotional and behavioral

-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 455-467.
- Martini, T. S., Root, C., & Jenkins, J. (2004). low and middle income mothers'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situational emotional responses. *Social Development*, 13(4), 515-530.
- Prinz, P., Onghena, P., Hellinckx, W., Grietens, H., Ghesquiere, P., & Colpin, H. (2004). Parent and chil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negative discipline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i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73-102.
- Reyna, B. A., & Pickler, R. H. (2009). Mother-infant synchron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Neonatal Nursing*, 38, 470-477.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2), 569-578.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105-176). NY: Wiley.
- Sogon, S. (1993). *The development of affective communication of children and mothers' styles of emotion expression*. Research Report of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Osaka Gakuin University.
- Szabo, N., Dekovic, M., van Aken, C., Verhoeven, M., van Aken, M. A. G., & Junger, M. (2008). The relations among child negative interactive behavior,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366-377.
- Whipple, E. E., Denburg, N. L., & Davies, W. H. (1993). *MSU family project second revision of Belsky's parent-child interaction coding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1차 원고접수 : 2011. 10. 1

수정원고접수 : 2011. 11. 6

최종게재결정 : 2011. 11. 29

The influence of children's involvement in mother-child interactions on mothers' reactive behaviors: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ity

Hana Song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levels of children's involvement in mother-child interactions on mothers' reactive behaviors.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al emotionality was also examined. Sixty two children of 5 years of age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hildren and mothers were observed engaging in free play, mother-child play, and Strange Situation settings. Both th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of children and mothers were videotaped and analyzed by two coders. Our results indicate that children who initiated and were involved in mother-child interactions more actively had mothers who showed more responsive and less over-controlling behaviors. While children's positive emotional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active involvement in interactions,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lso affected mothers' over-controll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children's low involvement in interactions on mothers' interrupting and over-controlling behaviors seems to be mitigated when children reported high levels of positive emotion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bidirectional reciprocity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mother-child interaction, involvement in interactions, child-directed interaction, responsiveness, emotionality, moderating effect